

기획

서문: 과학기술사, 농업사, 농학사의 교집합(또는 틈새)을 찾아서*

김태호†

다음에 실린 세 편의 논문은 넓은 의미의 농학사 또는 농업사를 과학기술사 관점에서 접근한 귀중한 시도들이다. 이 기획의 발단이 된 것은 2020년 10월 31일 열린 역사학대회 과학사분과 온라인 세션이었다. 한국 고도성장기 과학기술사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농업과학기술사를 주제로 삼은 발표가 여러 편 모이게 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독자적인 기획을 낸 일이 없었던 근현대 동아시아 농업과학기술사 특집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당시 구두발표를 했던 한국 농업과학기술사에 대한 논문 두 편(김성화, 이슬기 저)에 더하여 중수의학의 역사에 대한 한 편의 논문(이종식 저)을 추가하여 특집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이밖에도 함께 특집을 꾸리고자 했던 원고들이 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기획을 기약하게 되었음을 밝혀 둔다.

농업과학기술사는 외연이 넓고도 복잡하며, 시대와 주제에 따라 연구에 편차가 크다. 이는 농업사 자체의 외연이 넓고도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사에서, 전근대 농업사는 사실상 경제사와 마찬가지로 의미로 인식되고 연구되었다. 농업 생산이 경제 활동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현대로

넘어오면 농업사의 위상은 급속도로 축소되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경제와 사회에서 농업의 몫이 줄어들면서 농업사의 무게중심은 농촌 사회사 또는 농민사로 이동하였고, 농업사에서 설명해야 하는 현상들도 발전적인 것들보다는 “이촌향도”나 향촌공동체의 붕괴와 같은 것들로 바뀌어 갔다.

이번 특집은 근현대 농업과학기술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근대 농업과학기술사가 주로 생산력-생산관계 프레임이나 민족주의 프레임 안에서 해석되었던 것에 비해, 근현대 농업과학기술사 연구는 어떤 프레임이 우세하다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저명한 인물(우장춘, 현신규, 조백현 등)에 대한 연구와 특정 사건(녹색혁명, 산림녹화사업, 새마을기술봉사단 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잘 알려진 인공물(통일벼, 개량 농구, 경운기 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 근현대 농업과학기술의 계보 또는 네트워크를 그려 보기에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들이 많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과 나아가 동아시아의 근현대 농업과학기술사에서 새로운 주제를 개척할 때 유념해야 할 관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과학기술결정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과학기술이라는 “블랙박스”를 해체하여 그 형성 과정 자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은 전문적 과학기술사 연구자에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농업과 관련된 주제에 접근할 때에는 이런 경향이 의외로 강고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기도 한다. 근대 농업에서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최고의 가치로 군림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과학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물이나 문서를 남길 수 있는 정부나 연구기관의 행위자들 뿐 아니라, 문자 기록의 생산과 유통 구조 밖에서 지식과 실천을 주고받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나아가 문자로 남은 기록을 분석할 때에도 표면에 드러난 수사 이면에 숨은 다양한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연구자의 서사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특히 근현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과학기술은 국가의 강한 개입 아래 발전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강한 국가의 공식적 수사를 걷어내어야 보이는 것들이 많다.

이번에 수록된 세 편의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된다면, 근현대 농업과학

기술사에 대한 연구는 과학기술학계를 넘어 한국 근현대사 또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고 흥미로운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여 제2, 제3의 특집 기획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